

라틴아메리카의 인종과 정체성 문제

The Issue of Ethnic group of Latin America and Identity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라틴아메리카”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누구나 ‘혼혈’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인종’이다. 인디오, 흑인, 백인이 다양하게 섞여 온 과정이 곧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이고, 문화의 변천과정이다. 더구나 그 인종들 간의 만남은 수백 년 동안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고, 현재도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본질적 요소이다. 동시에 다양한 인종의 만남은 새로운 문화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원천이 되고 있다. 탱고, 삼바, 룸바, 살사, 메렝게, 콤비아, 마카레나 등의 음악과 춤은 스페인, 아프리카, 원주민 문화의 만남이 만들어낸 혼종의 문화이다. 20세기 서구 소설이 상상력의 고갈로 사정을 헤매고 있을 때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이 “마술적 사실주의”로 소설을 부활시킨 것도, 그들에겐 풍부한 혼종의 문화 토양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종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획되었다. 왜 라틴아메리카 국가마다 피부의 색깔이 다른지, 혼혈과 인종 분포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알아보고, 인종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 정치, 종교, 사회적 문제 등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면서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나라마다 다른 피부색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주지하다시피, 스페인 정복자들이 라틴아메리카에 도착하면서 인디오와 백인 간의 혼혈이 시작되었다. 남성 정복자들과 인디오 여성 간의 성관계는 정복의 특권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정복 초기에 백인 남녀 간 비율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특히 아스테카, 마야문명이 발달했던 멕시코와 과테말라, 그리고 잉카제국이 있었던 안데스 지역의 페루,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메스티소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나라가 되었다. 특히 안데스 국가들은 여전히 원주민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2011년에 전체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 중 백인 15%, 메스티소 30%, 케추아족 30%, 아이마라족 25% 정도로, 아직도 인디오 원주민 인구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지속된 흑인 노예의 유입으로 혼혈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 기간 동안 1천만 명 이상의 흑인이 라틴아메리카에 도착했고, 도중에 죽은 흑인도 1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결국 유럽에서 온 백인보다 더 많은 수의 흑인이 아프리카를 떠나 중남미로 향했지만 오늘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백인보다 적은 것은, 바로 긴 항해 도중 많이 죽었고, 도착 한 사람들도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삶의 조건, 질병 등으로 많이 죽고, 출산율도 아주



필자 : 김창민,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장
by Kim, Chang-Min

김창민 교수는 1959년 경북 풍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스페인 국립 마드리드대학교에서 중남미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학과 사회」, 「문학 번역의 이해」(공저)가 있으며, 우리말로 옮긴 책으로는 「미국은 섹스를 한다」, 「실라미나의 병사들」, 「검은 양과 또 다른 우화들」 외 다수가 있다. 「한국의 신화」,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김춘수 시선」 등을 스페인어로 옮겼다.

났았기 때문이다. 유입된 흑인노예 중 브라질에 40% 정도, 카리브 지역에 40%, 그 외 스페인어 사용 국가들에 16%, 북미에 4% 정도 팔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오늘날 브라질은 흑인 인구가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되었고,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등 카리브해 국가도 흑인과 흑인혼혈 인구의 비율이 높다.

아르헨티나는 18세기 페루 부왕령에서 분리되어 라플라타 부왕령이 될 당시에 인구가 80만 명이었다. 지역과 인종별로 보면 안데스 광산지역 40만, 과라니 원주민 15만, 팜파스 지역의 호전적인 아라우카노 원주민 20만,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의 백인과 혼혈인 5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869년 인구는 약 200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당시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유럽식 근대화를 추진하던 엘리트 세력은 유럽의 백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삼았다. 그래서 1880-1930년 사이 이민 정책을 통해 유럽으로부터 300만 명 이상을 받아들였다. 그 중 43%는 이탈리아에서, 34%는 스페인에서 왔고, 나머지는 독일, 러시아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1900년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인구 중 3분의 1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이미 19세기 말경 아르헨티나는 스스로 백인국가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웃나라인 브라질을 인종적으로 알보기 시작했다. 이 때 생겨난 아르헨티나인의 인종적 우월주의는 그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왔고, 20세기 말부터 아르헨티나가 지속적인 경제적 난을 겪으면서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했다. 또한 19세기 말에는 스페인 사람보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더 많이 아르헨티나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스페인어에는 이탈리아어 발음과 억양이 스며들었고, 음식을 비롯한 대중문화에도 이탈리아 문화의 요소가 많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도 이탈리아 문화가 주류가 되지 못했던 것은, 20세기 초 아르헨티나의 토착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스페인어, 스페인 문화, 가톨릭, 가족, 가부장적 질서 등이 아르헨티나의 문화적 특징으로 더욱 기반을 다졌기 때문이다.

인종 차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대표적인 메스티소 국가인 멕시코에서 일반 식당에 가면 재미있는 현상을 종종 목격한다. 식당에 들어 설 때 입구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사람이나 음식을 나르는 사람은 메스티소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식당이나 주변 도로를 청소하는 사람은 원주민이거나 원주민에 가까운 외모를 지닌 사람이기 쉽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음식 값을 받는 사람은 백인이거나 백인에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1820년 전후에 독립한다. 그러니까 멕시코도 독립한 지 2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인종과 계급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는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식민 시기에도 스페인 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인디오와 스페인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지녔다고 인정했지만, 현실은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식민 시절 멕시코에서 인종을 구분하고, 차별하려는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다. 아래 표는 18세기 당시 멕시코에서 혼혈의 종류를 분류한 내용이다.

- 스페인 사람과 인디오의 혼혈 : mestizo
- Mestizo와 스페인 여성의 혼혈 : castizo
- Castizo 여성과 스페인 사람의 혼혈 : 스페인 사람
- 스페인 여성과 흑인 남성의 혼혈 : mulato
- 스페인 사람과 mulato 여성과의 혼혈 : morisco
- Morisco 여성과 스페인 사람과의 혼혈 : albino
- 스페인 사람과 albino 여성과의 혼혈 : torna atrás ("turn away")
- 인디오 남성과 torna atras 여성과의 혼혈 : lobo
- Lobo와 인디오 여성과의 혼혈 : zambaigo
- Zambaigo와 인디오 여성과의 혼혈 : cambujo
- Cambujo와 mulato 여성과의 혼혈 : albarazado
- Albarazado와 mulato 여성과의 혼혈 : barcino
- Barcino와 mulato 여성과의 혼혈 : coyote
- Coyote 여성과 인디오 남성과의 혼혈 : chamiso
- Chamiso 여성과 mestizo와의 혼혈 : coyote mestizo
- Coyote mestizo와 mulato 여성과의 혼혈 : ahí te estás (there you are)

이처럼 혼혈과 관련된 어휘가 섬세하게 발달한 것은 18세기 멕시코의 현상만은 아니다. 프랑스령 식민지들에서는 인종에 대한 분류가 더 섬세하게 되어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불미스런 역사의 일부로 이미 사라진 것도 아니다. 1987년, 콜롬비아의 카리브 연안에 있는 카르타헤나 도시에서 120명의 다양한 계층의 성인들에게 다양한 인종과 의상을 입은 22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 인물의 인종 분류를 요구했다. 그 결과 22명의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인종 분류에 사용된 어휘가 128가지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평균 한 사진 당 17가지의 어휘가 사용되었다. 인종에 대한 분류가 단순히 대상자의 피부색과 신체적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문화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때, 인종에 대한 분류가 개인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만큼 인종에 대한 개념과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인종과 계급 간의 긴밀한 연관 관계가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인종과 혼혈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대단히 높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임에 틀림없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부는 1870년경부터 대대적인 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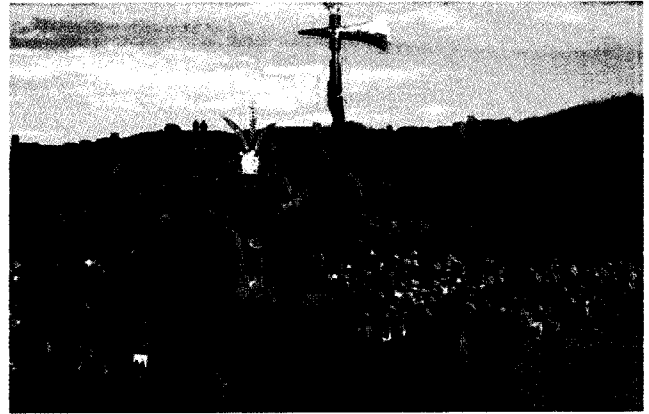
정책을 펴고 동시에, 1880년대에 이르러 팜파에 살고 있던 인디오 부족들을 잔인하게 토벌하여 '야만'적인 요소를 청산하고 인구를 더욱 백인화 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인디오들은 죽거나, 강제로 군대에 입대하거나, 농업노동이나 가사노동에 강제로 투입되었다. 백인 이민과 인디오 토벌 정책의 결과 인디오와 흑인 인구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869년 인디오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했는데, 1895년에는 전체 인구 약 4백만 명 중 0.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흑인인구도 1830년경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의 4분의 1이나 차지했는데, 1887년에는 2%로 떨어졌다. 그래서 20세기 들어 아르헨티나에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원주민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원주민들을 국민으로 통합하려는 국가적 기획도 없었다. 또 오늘날에도 볼리비아, 파라과이의 하층민은 일 자리를 찾아 아르헨티나로 가 농업과 가사 노동에 종사하면서 저임금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브라질은 인종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정당이나 인종주의자가 없고, 흑·백인종의 관계가 '민주적'이고도 '유연한' 것이 특징으로 알려진 나라였다. 브라질은 과연 흑인들에게 천국이었는가? 1888년 노예해방이 실현된 지 100년이 지나도록 브라질 정부나 사회는 인종 차별로 인해 생긴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브라질 문화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프리카의 흑인문화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흑인들을 국가 발전과정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인종차별금지법'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브라질의 일반 주택단지나 상업단지의 건물에는 보통 두 종류의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일반용 승강기(Elevador Social)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인용 승강기(Elevador de Serviço)로, 하인 계급에 속하는 흑인은 절대로 지배 계급이 타는 일반용 승강기에 동행할 수 없었다.

브라질은 북동, 남동, 남부, 중부지방이 사회문화적, 인종적, 경제적 차이가 뚜렷하여 마치 다양한 국가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처럼 보인다. 브라질 각 지역의 뚜렷한 특성을 이루는 근본 바탕은 인종이다. 오늘날 브라질의 1억 9천만 인구 중, 흑인인구는 약 44%를 차지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하다. 예를 들어 백인의 대학 입학률이 43%인 반면 흑인의 입학률은 18%에 불과하여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경우 브라질의 미래 사회에서 흑인의 신분상승은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인종 통합의 노력과 한계

20세기 최초의 민중혁명이라 불리는 멕시코 혁명을 통해서 멕시코 사회는 민족주의 열기로 가득 찼다. 새로운 지도 세력은 멕시코 민중의 대부분이 인종적으로 메스티소라는 점에 상당히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언어, 종교, 의복, 가족 형태, 개인의 의식 같



잉카의 유적지 삭사우야망에서 열리는 <태양의 축제>. 페루 원주민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원주민 문화 회복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열리는 축제이다.

은 요소가 인디오인지 메스티소인지를 결정한다고 믿었다. 또한 그러한 요소들이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의 인종도 변화에 얽혀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합의 속에서 엘리트들은 교육을 통해서 인디오를 멕시코 사회에 점진적으로도 비폭력적으로 통합시키려고 시도했다. 그것을 “원주민주의(Indigenismo)”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멕시코혁명에 참여했던 하층계급의 지분을 인정하고, 멕시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메스티소 문화의 한쪽 뿌리를 복원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혁명이 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호세 바스콘셀로스는 메스티소를 “raza cósmica”(cosmic race, 조화로운 인종, 세계적 인종)이라고 칭하고, 멕시코를 대표하는 인종이지만, 미래에는 결국 지구를 대표하는 인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주민주의자의 주장은 서구중심주의, 백인우월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스스로 인종의 태생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었고, 나아가 일부는 메스티소와 인디오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백인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원주민 운동은 원주민이 많은 안데스 지역 국가들에도 확산되었다. 페루의 경우 칠레와의 태평양 전쟁(1879-1883)에서 패하자 민족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고,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디오를 국민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원주민주의는 사상, 학문, 정치, 예술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그 후 정치인과 지식인이 주도하는 원주민운동이 계속되었고, 20세기 말부터 원주민이 주도하는 원주민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원주민 인구에 걸 맞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인종문제를 해결하고, 인종통합을 이루려는 사회적 공론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 최초의 사회학자이며 인류학자인 질베르투 프레이리(Gilberto Freyre, 1933)는 ‘인종 민주주의론(racial democracy)’을 내세우면서 “브라질은 인종문제가 없고, 흑·백의 인종 관계가 민주적이고도 유연한 나

라"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브라질의 문화를 '루조-트로피칼리즘(luso-tropicalismo) 문화'로 규정하면서 포르투갈인, 아프리카 흑인, 남미 열대의 토착인 문화의 혼합으로 이어진 문화로 규정하면서, 브라질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 그의 후학들은 이를 발전시켜 "브라질의 인종혼합 경험이 다가올 미래세계에서 다른 나라가 모방하게 될 모델임으로, 브라질인 스스로는 이와 같은 문화적 혼합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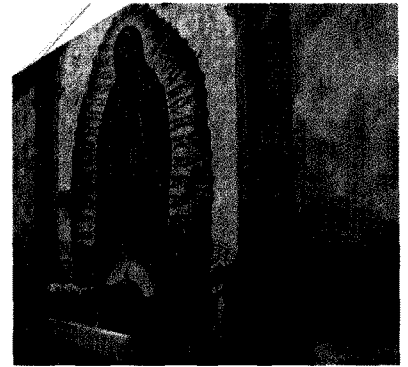
실제 브라질 정부는 1930년대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만든 '인종민주주의론'과 '루조-트로피칼리즘' 신화를 이용해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 정치적 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오히려 정부는 인종차별이 심각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 일부 흑인들을 상징적으로 이너 씨클에 끌어안음으로써 대다수 흑인을 사회에서 소외시키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흑인들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 흑인들 중 90%가 자기들이 흑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노예'시절의 과거를 잊으려는 듯 스스로를 '흑인(negro)'이라 부르지 않고, '물라토(mulato)' 아니면 '모레누(moreno)'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100명의 흑인 중 70명은, "인종이 자꾸 혼합되다 보면 전체 브라질 국민의 피부가 언젠가는 '백인화'가 될 것"이라는 실비우 호메루(Silvio Romero)의 주장에 사로잡혀있기에, 예전만큼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추구하지 않으려 한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 하에서도 흑인의 지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1970년대 말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1978년 창설되어 지금은 브라질 전역에서 흑인들의 복지를 주장하는 '흑인운동연합(MNU-Movimento dos Negros Unificados)'은 자신들이 흑인의 후손임을 인정하는 정체성 문제부터 깨우치려는 운동을 펴고 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1995년에 사회학자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브라질 정부는 그 역사상 처음으로 인종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를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책의 대 전환을 이루었다. 카르도주 정부는 구조적, 정책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통해 흑인들이 진정한 브라질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다. 특히 흑인문화 재평가 작업에 대한 정책적 후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흑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진정한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직도 '인종'은 갈등의 핵심이다!

멕시코의 거의 모든 가정에는 과달루페 성모상이나 그림이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석 앞에 작은 성모상이나 그림을 놓고 안전 운전을 기원한다. 과달루페 성모는 혼혈의 성모 마리아다. 그래서 과달루페 성모는 양 대륙의 문화융합을 대변하는 상징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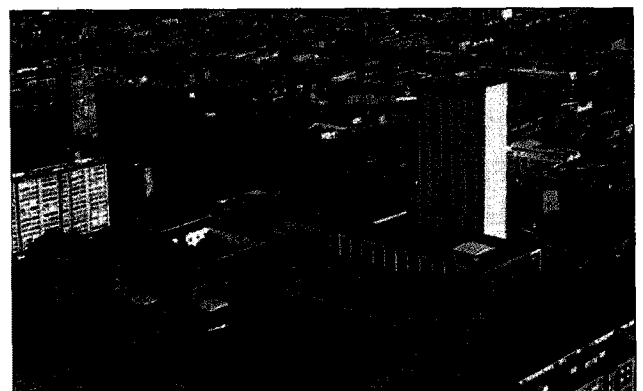
다. 혼종화 된, 혹은 라틴아메리카에 도착화된 가톨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정복자 코르테스는 원주민을 개종시키려고 신전을 파괴하고, 원주민의 전통 제례를 엄격하게 금했다. 당시 스페인은 가혹한 종교재판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식으로 원주민을 우상숭배자로 몰고 토착사회를 붕괴시켜 나갔다. 하지만 원주민을 진정으로 개종시키는 사업은 지지부진 하고 있었다.



과달루페 성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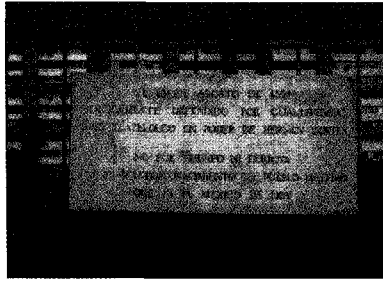
바로 그 때인 1531년 12월 9일, 아스테카문명에서 대지의 여신인 토난친(Tonantzin)의 신전이 있던 테페약에서, 원주민 후안 디에고(Juan Diego)에게 원주민의 피부색을 한 과달루페 성모가 푸른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 자신을 기리는 성당을 지으라고 일렀다. 후안 디에고의 말을 들은 사제가 믿지를 않자, 세 번째 나타나 기적을 보여주었고, 결국 사제는 과달루페 성모를 모시는 성당을 짓게 된다. 원주민 모습을 한 성모의 출현으로 원주민들은 수월하게 성모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출현 이후 7년 만에 멕시코 인구의 대부분인 800만 명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된다. 과달루페 성모 사건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종교의 토착화를 극명하게 잘 드러내 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존재하는 산테리아, 부두, 칸돔블레 등의 혼합종교, 다시 말해 가톨릭과 아프리카의 토속종교의 혼합으로 탄생한 종교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종교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각 지역의 인종 구성에 따라 토착화와 혼종화가 이루어져 큰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지만, 정치 사회적 영역에서는 아직 많은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 시티에 있는 트랄텔롤코 광장은 삼색(三色)광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트랄텔롤코 광장, 혹은 삼색 광장〉. 원주민 유적지 위에 성당이 지어졌고, 주변에 근대적 건물들이 들어섰다.

곳은 애초에 아스테카 신전이 있던 곳인데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 유적지 위에 성당을 세웠고, 그 후 메스티소 국가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 주변에는 빌딩들이 들어서게 되어 삼색광장이라 칭한다. 그 광



스페인에 의한 아스테카 제국 정복의 의미를 알리는 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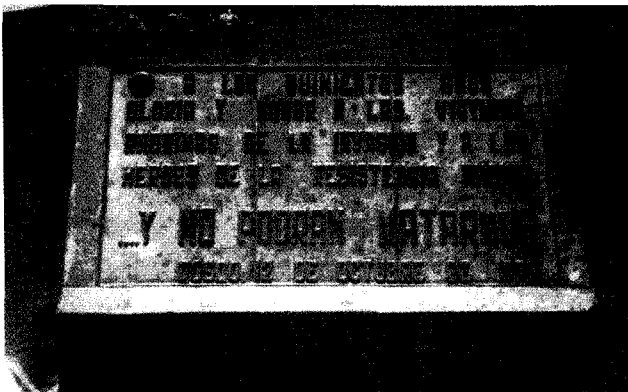
장 한 전에는 멕시코 정복에 대한 의미를 적은 비문이 있다.

“1521년 8월 13일, 틀랄테홀코는 쿠아우테묵 왕이 장렬하게 방어했으나 에르난 코르테스의 수중에 넘어갔다. 승리도 아니었고, 패배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멕시코인 메스티소 민족이 탄생하는 고통스런 순간이었다.” 이 비문은 백인과 원주민의 역사적, 인종적 갈등을 넘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는 내용이다. 동시에 승자와 패자, 침략자와 피침략자의 피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메스티소 민족의 비극적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민족 통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멕시코 원주민들이 완전히 국민으로 통합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1994년 1월 1일 발발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사이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바로 그날,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밀럼에서 원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무장단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이 멕시코 정부군에 선전포고를 했고, 아직까지 미결상태로 남아 있다. 이 무력갈등은 메스티소 국가로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멕시코에서조차 인종 문제가 아직도 생생한 상처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부사령관 마르코스



콜롬버스 도착 500주년을 맞아 쿠스코의 공원에 세워진 비석

과거 잉카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 시의 한 공원에는 콜롬버스 도착 500주년을 맞아 1992년 10월 12일에 설치한 비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500 주년을 맞아 침략에 희생된 이름 모를 사람들과 안데스를 방어하려 했던 영웅들에게… 그리고 침략자들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는 2005년 대통령 선거에서 원주민으로선 처음으로 당선된 뒤 “마침내 원주민이 500년 만에 주권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많은 나라에서 인종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인종 불평등 문제는 국민 통합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종 격차는 곧 계급의 고착화와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의미하며, 대도시에서는 도시 빈민촌의 계도화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근래에 페루나 볼리비아 같이 원주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이 많은 국가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인종적 친연성을 내세워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그렇다고 원주민이나 혼혈이 인종에만 근거해 투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족으로 구성된 원주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원주민출신 지도자가 흔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많은 혼혈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해 허위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종 문제와 그것에서 파생되는 경제, 사회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적 민주화와 정보의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원주민들도 많이 의식화되어 가고, 주체적인 원주민 운동도 활발해지고 있어, 미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다. ■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차이를 넘어 공존으로: 스페인어권 세계의 문화 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이성형 편, 「브라질: 역사, 정치, 문화」, 끼치, 2010.
- Fox, Arturo A., *Latinoamérica: Presente y pasado*, Pearson Education, Inc., Upper Saddle River, NJ, 2003.
- Gilroy, Paul,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Verso, London, 1993.
- Hillman, Richard S., *Understanding contemporary Latin America*,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Boulder, Colorado, 2001.
- Rouquié, Alain, *América Latina: Introducción al extremo occidente*, Siglo Veintiuno Editores, México, 1989.